

여수시 '미래형 수산업' 육성 박차

전국 기초단체 최초 돌산 우두리에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양식장 AI 기술 접목·132억원 투입 첨단위판장 2곳 설립

'미항 여수'가 내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하고 양식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며 미래 수산업 전환에 나선다.

여수시는 내년 말까지 돌산을 우두리 일원에 자체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안전센터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소비 감축 등에 대응해 여수 수산물의 신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산물 안전센터를 세우는 건 여수가 처음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1억원을 들여 어업지 도선에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 장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측정된 해수 방사능 수치는 여수시 누리집과 주요 전자계시대 459곳에 공개하고 있다.

여수시는 132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위판장 2곳을 올해 안에 건립할 계획이다.

위판장은 수산물 운반과 선별, 위판, 배송 등 전 과정이 이뤄지는 위생시설을 갖춘다.

통합 양식장에는 70억원을 들여 친환경 부착기



내년 말까지 여수시 돌산을 우두리에 짓는 '수산물 안전센터' 조감도. (여수시 제공)

와 인공 부표를 보급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여수 통합 양식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시는 수산물 안전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미래 첨단 양식으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상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양식모델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해상 양식장에 접목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 뒤 여수시는 내년 초 진행될 해양수산

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여수 특성에 맞는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체계(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양식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수온 조절과 사료 배급을 할 수 있다.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갖춰 환경 측정과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첨단 스마트 친환경 양식이다.

이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 이상기온에 따른 양식장 예방을 예방하고 생산기간을 줄여 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수시는 아울러 105억원 투입해 수산자원 보존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 예산은 정치망어업 감축 사업과 바다 정원화·인공어초 관리, 산란 서식장 조성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54억원을 투입해 양식재해보험과 재해 예방형 양식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우수 종자 공급과 자동화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품종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수산업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30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선정된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순천시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업체 추가 선정

선정위원회 14개 공급업체와 협약

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과 국립 갈매식(밀키트)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가 선정된 14개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들은 지난 2월 진행된 공개모집에 신청한 뒤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뽑혔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농산물꾸러미, 품부차, 국밥 밀키트, 맥주, 공예품, 국밥 식사권, 벌초 대행 서비스 등 농축수산물 3개 품목, 가공식품 10개 품목, 생활용품(공예품) 13개 품목, 관광·서비스 2개 품목으로 총 28개 품목이다.

여기에 오는 4월1일 개막을 앞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등 공공시설 이용권도 답례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총 57개 업체 103개 품목으로 단장했다.

순천시는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교육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공급업체는 이달 중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해 답례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순천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순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기에 맞게 답례품 개별 홍보를 진행해 기부자들에게 순천시 답례품의 매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위기에 빛났다"

보성군 코로나 백신 발간 1320일간 극복 과정 담다

보성군이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성군 코로나19 백신'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20일간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주요 대응 과정이 정리돼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의병단의 마스크 제작, 전 군민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집중돌 전담 1위, 전국 최초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전 군민 무료 독감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모범사례로 꼽힌 보성군 대응 정책도 담았다.

보성군, 유관기관, 민간인 등의 생생한 수기도 담겨 실제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보성군은 관내 유관 기관에 백서를 배부하고, 보성군 누리집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지난해 '고흥 유자나무 분양' 행사 참가자들이 유자를 수확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유자나무 한 그루 키워보세요

고흥군농기센터 200주 분양

고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흥 유자나무 200주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의 유자나무' 분양 행사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흥군 또는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비용은 1주당 7만원이며, 1인 최대 2주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나의 유자나무' 분양 행사는 유자 주산지인 고흥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자나무를 분양받아 유자꽃이 피는 시기(5월)에 특별한 이름을 나무에 붙이고, 11월 직접 유자를 수확해 차로 만들 수 있다.

고흥군은 유자나무 1주당 유자 수확량 10kg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4회 고흥유자축제'에 참여해 '가을엔 고흥 유자여행'을 주제로 한 농촌 체험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061-830-6854, 6856, 6859)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주말 광양으로 벚꽃 구경 가볼까

22~24일 금호동 벚꽃문화제

옥룡사 일원선 천년동백축제

오는 주말 광양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을 만날 수 있다.

광양시는 22일 금호동 광양벚꽃문화제를 시작으로 옥룡사 광양천년동백축제 등이 잇따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에서는 지난 17일 막을 내린 23회 광양매화축제에 이어 다양한 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9회 광양벚꽃문화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조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시 측은 "이날 현재 개화율 10%로, 올해 벚꽃 개화기가 예년보다는 늦지만 피어오르기 시작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에는 광양벚꽃문화제가 열리는 금호동 외에도 광양을 서천, 광영동 가야로 등 벚꽃 명소도 있다. '다시 봄, 벚꽃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금호동 벚꽃문화제에서는 오후 2시부터 장기 자랑, 모듬북, 광양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6시 개회식이 열린다. 23일에는 청소년

페스티벌, 합기도 시범, 벚꽃가요제 예선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전국밸리댄스대회, 광양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어 벚꽃가요제 본선과 초대 가수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광양천년동백축제'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옥룡사 동백나무숲 일원에서 '천년의 동백숲 소풍가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 옥룡 동산봉물단의 길놀이, 광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오전 11시 30분 개회식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동백가요제에서 시민들이 기량을 겨룬다. 오후 1시에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가 열린다. 어린이 동반 가족은 사진 인화와 액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추억의 보물찾기, 동백기름 체험, 화장품·비누·팔찌 만들기, 생강커피 식음, 선각극사 도선 참선길 걷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에는 벚꽃이 필 즈음 제맛을 느낄 수 있는 벚굴, 섬진강 재첩 등 봄철 먹거리가 풍부한 만큼 오감을 만족하는 광양미식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